

전 남 일 보

89. 10. 27



「환경보호운동」 앞장
平民朴英淑 부총재

는 자리에 단골강사로 나
서고 있는 박부총재는 제
21회 YWCA 민중토론회
「환경문제 어떻게 방치할
 것인가」를 주제로 강연
을 갖기 위해 내팔예정인

汚染심각... 국민적극극나서야

漢江, 雪嶽山, 仁川 앞
바다 오염실태를 날마다
공개해 국토오염의 심각성
을 일깨워줬던 박부총재는
「최근 우리 환경오염심각
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

발사업 등으로 향후 오염
가능성이 가장 높은 「위험
지역」인을 지적.
특히 전국의 5백80여
개의 정수기시설 중 5백
20개를 조사한 결과, 부

「原電」건설 등 光州·全南 위험지역



로 없이 국민 전체가 나서
야 할만큼 절박한 상태라
고 진단했다.
박부총재는 光州·全南
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며
원전 추가건설, 서해안 개

적격 광장을 받은 9개 가
운데 7개가 湖南지역에
서 발견된 사실을 지적
하며 「이 지역 식수오염
도는 전국 최고치라고 밝
혀 湖南지역 식수오염실
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
웠다.

박부총재는 「정부측
의 자료도점과 민간차원
의 조사한계, 환경오염
의 인식부족 등이 환경보
존운동과정에서 가장 큰
어려움」이라고 토로하고
「光州시민들이 범국민운
동차원에서 환경오염방지
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
했다.

〈서울支社 崔進기자〉